

2021년 11월 14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목상기도 하겠습니다.

◎ 목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5편 11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45편 11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04(통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베드로후서 1장 1~11절(신약p.384)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5.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 말씀선포 /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

베드로전서가 다가올 환난의 시대, 곧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를 예견하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음으로 임박한 박해를 이겨 내라고 격려했다면, 베드로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비웃거나 조롱을 일삼는 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언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상기시켜 재림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전서에서 외부적인 핍박과 시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에서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 내에는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여 성도들을 교리적 오류와 도덕적 방종으로 몰고 갔으며 교회를 분열의 위기까지 몰고 갔었습니다. 이에 성도들이 복음을 완전히 깨달을 때에 만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까지 성장할 것을 촉구하며 본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때로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오해하면 방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만을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살든 은혜 입은 자들은 구원을 받기에 때로 그 삶 속에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성도는,

1. 구원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본문 2~4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앞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구원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나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은 스스로 선을 택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5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기에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에 응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 어떤 자랑도 할 수 없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로 고백하며 오직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섭리로 인하여 항상 감격하며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2.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성도가 구원받는 데는 한 일이 전혀 없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5~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악독과 분냄과 비방 등의 모든 악을 벗어 버리고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는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므로 능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골로새서 1장 10~12절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림으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뿐 아니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의무를 바로 알고 더욱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3. 의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 본문 10~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그러나 디도서 1장 16절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고 말씀하면서 입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종교적 위선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과 사역을 열심히 감당한 자도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성도는 종교적 행위나 열심에 기대어 우리 스스로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이끌려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거짓된 자 참된 성도가 아닌 종교인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알곡이 자라는 곳에 컙정에도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진정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며 받은바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 이라고 칭찬 받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00(통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 폐 회 / 주기도문